

자립준비청년
금융교육 및 상담 효과성 분석
2022년 최종보고서

2022. 5. 20.

(사)금융과행복네트워크

I. 금융교육 및 상담 효과성 측정 의의

1. 필요성 및 의의

- 금융교육 및 상담의 목적은 금융이해력 향상을 통해 재무적 태도와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으로서 결국 생애 전반에 걸쳐 금융만족감, 안전감, 자신감인 금융웰빙에 도달 하는 것임(정운영 외 2인, 2020)¹⁾
 - 2010년대 들어 전 세계적으로 금융이해력 및 금융역량 제고 정책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실시되어 온 ‘국가금융역량전략’(National Strategy for Financial Capability)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초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음
 - 이에 우리나라도 2016년부터 OECD의 금융이해력 척도를 이용하여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2년마다 성인과 취약 계층의 금융이해력을 측정하고 있음
 - 그러나 금융이해력 또는 금융역량 측정은 평생 지속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성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과 청년시기에도 매우 중요함
- 이에 본 보고서는 금융산업공익재단 지원으로 진행되는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 및 자산형성지원사업’ 프로그램 중 금융교육 및 상담을 받은 자립준비청년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상담 사전·사후 수준과 효과성 차이를 조사·분석하였음
-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이들을 위한 보다 질적으로 향상된 맞춤형 금융교육 프로그램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임
 - 본 프로그램 내용을 토대로 자립준비청년들의 금융역량(금융지식, 태도, 행동) 및 상담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을 개발하고 조사·분석함으로써 각 영역별 수준을 평가하였음

II. 금융교육 및 상담 효과성 측정 척도개발 및 분석방법

1) 정운영, 이진호, 이혜림(2020), “금융행복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 Quarterly National Accounts Review, 4th, pp.1-45.

1. 효과성 측정을 위한 척도개발

- 금융교육의 효과 측정은 시행되는 교육내용을 바탕으로 ‘금융지식, 태도와 행동’ 3가지 영역에서 금융역량 척도를 개발하고 이에 따라 교육 전과 후를 측정하여 그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임
- 본 사업 지원자에게 제공되는 금융교육 영상을 바탕으로 개발한 금융교육 효과성 측정문항은 <표 1>과 같음

<표 1> 금융교육 효과성 측정문항

영역	측정문항
금융 지식	1. 수익률이 높은 투자는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다. 2. 휴대폰 사용료가 연체되는 것은 신용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3. 국민연금은 물가에 의한 실질가치를 보장하는 연금이다. 4. 집주인은 세입자가 2개월 이상 연체 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5. 아르바이트는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 6. 쉽게 대출 받을 수 있는 곳일수록 금리가 비싸다.
금융 행위	1. 소액이라도 연체하지 않는다. 2. 나는 한 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하려고 노력한다. 3. 내 개인정보를 노출시키지 않고 잘 관리하는 편이다. 4. 나는 식비, 잡회비, 의류비 등 월변동성 지출을 잘 통제하는 편이다. 5. 내 이름의 저축통장을 가지고 꾸준히 저축하고 있다. 6. 나는 미래변화에 관심이 많고 환경에 적응하고 잘 대응할 수 있다.
금융 태도	1. 현재를 위해 소비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2. 돈은 어떤 방법으로든 무조건 많이 벌 수 있으면 좋다.* 3. 사고 싶은 게 있으면 돈을 빌려서라도 먼저 사야 한다고 생각한다.* 4. 돈을 빌리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 은 역코딩문항임

- 상담 효과성 측정은 1:1 멘토링 상담으로 인해 상담 전과 후 멘티의 태도와 행동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측정하여 상담이 참여자의 긍정적 변화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는 것임

- 자산형성지원자 중 100명의 상담멘티에게 제공되는 상담은 주로 그들의 금융고민 해결과 올바른 금융의사결정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게 됨. 그러나 이외 더불어 정서, 심리문제, 진로문제, 관계문제 등 자립준비청년이 지닌 여러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는 상담도 제공되었음
 - 이에 상담 효과성을 측정하는 문항에는 참여자들의 금융, 진로, 심리, 관계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문항들이 함께 포함됨

□ 상담 효과성 측정문항은 <표 2>와 같음

<표 2> 상담 효과성 측정문항

영역	측정문항
금융 상품 가입 경험	1. 은행 예·적금을 가입해본 경험이 있다. 2. 주식에 직접 투자해본 경험이 있다. 3. 펀드를 가입해본 경험이 있다. 4. 보험상품에 가입해본 경험이 있다.
재무 문제 대처 능력	5. 나는 재무관리(돈 관리)에 자신감이 있다. 6. 나는 돈 문제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7. 나는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잘 실천할 수 있다. 8. 나는 재무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9. 예기치 못한 재정적 문제가 발생해도 나는 잘 대처할 수 있다.
일상 돈 관리 능력	10. 나는 예산(돈쓰기 계획)을 세우고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11. 나는 지출내역(가계부)를 기록하는 편이다. 12. 나는 비상예비자금을 가지고 있는 편이다. 13. 나는 재무목표가 분명히 있다. 14. 나는 소득의 일정 부분을 정기적으로 저축(투자) 한다.
비재 무적 상담	15. 나는 진지하게 나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편이다. 16. 나는 진로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있다. 17. 나는 나의 밝은 미래를 위해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편이다. 18. 생각을 함께 공유할 친구가 있다. 19. 어려움 점이 있을 때 언제든지 기대고 도움을 청할 어른이 있다.
상담	20. 상담을 통해 한결 편안해졌다.

만족 도	<p>21. 상담을 통해 고민했던 바가 많이 해결되었다.</p> <p>22. 상담을 통해 긍정적인 나의 미래 모습을 꿈꿀 수 있게 되었다.</p> <p>23.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친구에게 상담을 권하고 싶다.</p>
---------	---

* 1~4번 문항은 사전상담평가에만, 20~23문항은 사후상담평가에만 적용됨

2. 조사대상 및 분석방법

□ 분석대상

- 금융교육 및 상담을 받은 자립준비청년

□ 분석내용

- 금융교육 사전(132)/사후(117) 금융역량 실태
- 융복합 상담 사전(52)/사후(50) 실태

□ 분석방법

-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과 각 항목별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기초통계를 실시함
- 사전 사후 차이검증을 통해 효과성을 분석함

□ 조사일정

- 사전조사(2021.10)
- 사후조사(2022.04)
- 최종 효과성 검증을 위한 분석(2022.05)

Ⅲ. 금융교육 및 상담 사전 실태조사

1. 금융교육 사전 실태조사

1) 조사대상자 특성

□ 금융교육 사전 조사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3>과 같음

<표 3> 교육 사전 설문 참여자 일반적 특성

변인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	51	38.6
	여	81	61.4
	계	132	100
소득 규칙성	규칙적	89	67.4
	불규칙적	43	32.6
	계	132	100

- 금융교육 사전평가를 진행한 대상은 총 132명으로 남녀 성별은 남성은 38.6%, 여성은 61.4%로 분포되어 있고, 소득이 규칙적인 경우가 67.4%로 더 높게 나타났음
- 평균 연령은 25세로 나타남

2) 금융역량 사전 실태

□ 금융교육을 시행하기 전 조사에 임한 자립준비청년의 금융역량수준은 <표 4>, <표 4-1>, <표 4-2>와 같음

<표 4> 금융지식 수준(N=132)

문항	정답	정답율	N
1. 수익률이 높은 투자는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다.	그렇다	81.1	107
2. 휴대폰 사용료가 연체되는 것은 신용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아니다	81.8	108
3. 국민연금은 물가에 의한 실질가치를 보장하는 연금이다.	그렇다	37.1	49
4. 집주인은 세입자가 2개월 이상 연체 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그렇다	37.8	50
5. 아르바이트는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	아니다	11.4	15
6. 쉽게 대출 받을 수 있는 곳일수록 금리가 비싸다.	그렇다	68.9	91
			132

- 금융지식항목: 금융지식 항목 중 가장 정답율이 높은 것은 '휴대폰 사용료가 연체되는 것은 신용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와 '수익률이 높은 투자는 상

대적으로 위험도가 높다'에 대한 문항으로 나타났고 아르바이트 후 퇴직금 관련내용과 국민연금, 임대차 계약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정답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4-1> 금융태도 수준(N=132)

문 항	전혀 아니 다	아니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N
1. 현재를 위해 소비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42	63	22	5	132
2. 돈은 어떤 방법으로든 무조건 많이 벌 수 있으면 좋다.	44	57	23	8	132
3. 사고 싶은 게 있으면 돈을 빌려서라도 먼저 사야 한다고 생각한다.	94	32	6	9	132
4. 돈을 빌리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9	18	105	13	132

- 금융태도항목: '돈 쓰기'태도는 미래저축보다 현재소비중시성향을, '돈 벌기'태도는 비교적 윤리적 성향을, '돈 빌리기'태도는 비교적 신중한 성향을 보이고 있음. 이를 통해 돈 쓰기 태도에 대한 균형적 시각 정립에 도움이 되는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표 4-2> 금융행동 수준(N=132)

문 항	전혀 아니 다	아니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N
1. 소액이라도 연체하지 않는다.	13	4	32	83	132
2. 나는 한달 예산 범위내에서 지출하려고 노력한다.	11	15	67	39	132
3. 내 개인정보를 노출시키지 않고 잘 관리하는 편이다.	11	20	66	35	132
4. 나는 식비, 잡회비, 의류비 등 월변동성 지출을 잘 통제하는 편이다.	18	48	46	20	132
5. 내 이름의 저축통장을 가지고 꾸준히 저축하고 있다.	20	25	54	33	132
6 나는 미래변화에 관심이 많고 환경에 적응하고 잘 대응할 수 있다.	11	19	76	26	132

- 금융행동항목: 미래 변화 대응, 예산수립 등 소비지출, 저축, 신용 및 부채관

리행동 전반에 걸쳐 비교적 양호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상대적으로 변동성 지출관리의 어려움이 있으나 올바른 변동성 지출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을 한 후 변화를 측정해볼 수 있음

2. 상담 사전 실태조사

1) 조사대상자 특성

□ 상담 사전 조사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5>와 같음

<표 5> 상담 사전 설문 참여자 일반적 특성

변인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	22	42.3
	여	30	57.7
	계	52	100
소득 규칙성	규칙적	40	76.9
	불규칙적	12	23.1
	계	52	100

- 현재 상담 사전 설문예 응한 대상은 총 52명으로 남녀 성별은 남성은 약 42%, 여성은 약 58%로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소득이 규칙적인 경우가 76.9%로 더 높게 나타났음
- 평균 연령은 23세로 나타남

2) 상담 사전 실태조사

□ 상담 사전조사에 임한 자립준비청년의 금융, 진로, 관계, 정서 등의 수준은 <표 6>과 같음

<표 6> 사전 참여자 조사(N=52)

문항	전혀 아니 다	아니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은행 예 적금을 가입해본 경험이 있다.	42	5	5	0
2. 주식에 직접 투자해본 경험이 있다.	19	30	3	0
3. 펀드를 가입해본 경험이 있다.	8	38	6	0

4. 보험상품에 가입해본 경험이 있다.	22	23	7	7
5. 나는 재무관리(돈 관리)에 자신감이 있다.	7	26	17	2
6. 나는 돈 문제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15	20	14	3
7. 나는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잘 실천할 수 있다.	6	19	21	6
8. 나는 재무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9	20	20	3
9. 예기치 못한 재정적 문제가 발생해도 나는 잘 대처할 수 있다	7	16	25	4
10. 나는 예산(돈쓰기 계획)을 세우고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5	15	30	2
11. 나는 지출내역(가계부)를 기록하는 편이다.	16	27	8	1
12. 나는 비상예비자금을 가지고 있는 편이다.	9	17	24	2
13. 나는 재무목표가 분명히 있다.	5	25	19	3
14. 나는 소득의 일정 부분을 정기적으로 저축(투자) 한다.	3	14	29	6
15. 나는 진지하게 나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편이다.	2	5	28	17
16. 나는 진로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있다.	6	21	16	9
17. 나는 나의 밝은 미래를 위해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편이다.	2	7	30	13
18. 생각을 함께 공유할 친구가 있다.	5	8	26	13
19. 어려움 점이 있을 때 언제든지 기대고 도움을 청할 어른이 있다.	4	11	22	15

- 금융역량: 소득의 일정부분을 정기적으로 저축, 투자한다는 답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상품 가입여부를 묻는 질문문항에는 부정답변이 많아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높지 않고, 단순히 쓰고 남은 돈을 비상예비자금 통장 등에 모으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실제 상담에서도 이런 행동은 많이 목격되고 있음). 재무관리와 재무문제해결에 대한 자신감도 다소 부족하고, 재무목표에 대한 상도 명확하지 않은 편임. 향후 상담은 올바른 재무관리, 재무목표 명확화, 금융상품 의사결정능력 함양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 진로, 관계 등: 미래에 대한 고민은 많으나, 진로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부족한 친구들이 많은 편임. 그러나 관계 측면에서는 생각보다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엿볼 수 있음

IV. 금융교육 및 상담 사후 실태조사

1. 금융교육 사후 실태조사

1) 조사대상자 특성

□ 금융교육 사후 조사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7>과 같음

<표 7> 교육 사후 설문 참여자 일반적 특성

변인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	54	46.2
	여	63	53.8
	계	117	100
소득 규칙성	규칙적	77	65.8
	불규칙적	40	34.2
	계	117	100

- 현재 금융교육 사후평가를 진행한 대상은 총 117명으로서 남녀 성별은 남성은 46.2%, 여성은 53.8%로 분포되어 있고, 소득이 규칙적인 경우가 65.8%로 더 높게 나타났
- 평균 연령은 26세로 나타남

2) 금융역량 사후 실태

□ 현재 사후조사에 임한 자립준비청년의 금융역량수준은 <표 8>, <표 8-1>, <표 8-2>와 같음

<표 8> 금융지식 수준(N=117)

문항	정답	정답율	N
1. 수익률이 높은 투자는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다.	그렇다	95.7	112
2. 휴대폰 사용료가 연체되는 것은 신용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아니다	88.0	103
3. 국민연금은 물가에 의한 실질가치를 보장하는 연금이다.	그렇다	64.1	75
4. 집주인은 세입자가 2개월 이상 연체 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그렇다	67.5	79
5. 아르바이트는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	아니다	87.2	102
6. 쉽게 대출 받을 수 있는 곳일수록 금리가 비싸다.	그렇다	81.2	95
			117

- 금융지식항목: 금융지식 항목 중 가장 정답율이 높은 것은 ‘수익률이 높은 투자는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다’로 나타났고 ‘휴대폰 사용료가 연체되는 것은 신용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및 ‘아르바이트 후 퇴직금 관련내용’에 대한 정답율은 88, 87%로 상대적으로 높고, 국민연금, 임대차 계약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으나 사전조사에 비해 매우 높은 정답률로 나타남

<표 8-1> 금융태도 수준(N=117)

문항	전혀 아니 다	아니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N
1. 현재를 위해 소비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42	39	20	16	117
2. 돈은 어떤 방법으로든 무조건 많이 벌 수 있으면 좋다.	52	44	18	3	117
3. 사고 싶은 게 있으면 돈을 빌려서라도 먼저 사야 한다고 생각한다.	86	25	4	2	117
4. 돈을 빌리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4	0	15	98	117

- 금융태도항목: ‘돈 쓰기’태도는 미래저축이 현재소비중시성향보다 높게 나타났고, ‘돈 벌기’태도는 비교적 윤리적 성향을, ‘돈 빌리기’태도는 신중한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사전조사에서 ‘돈 쓰기’태도는 미래저축보다 현재소비중시성향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육 후 저축에 대한 중요성을 더 많이 인식한 것으로 보임

<표 8-2> 금융행동 수준(N=116)

문 항	전혀 아니 다	아니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N
1. 소액이라도 연체하지 않는다.	3	2	23	88	116
2. 나는 한달 예산 범위내에서 지출하려고 노력한다.	2	6	46	62	116
3. 내 개인정보를 노출시키지 않고 잘 관리하는 편이다.	2	12	48	54	116
4. 나는 식비, 잡회비, 의류비 등 월변동성 지출을 잘 통제하는 편이다.	2	21	55	38	116
5. 내 이름의 저축통장을 가지고 꾸준히 저축하고 있다.	3	7	45	61	116
6. 나는 미래변화에 관심이 많고 환경에 적응하고 잘 대응할 수 있다.	3	8	57	48	116

- 금융행동항목: ‘소액이라도 연체하지 않는다’에 대한 행동은 매우 높게 나타났고 저축과 미래 변화 대응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그렇다가 높게 나타났으나 이에 비해 변동성지출관리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다른 영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2. 상담 사후 실태조사

1) 조사대상자 특성

□ 상담 사후 조사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9>와 같음

<표 9> 상담 사후 설문 참여자 일반적 특성

변인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	20	40.0
	여	30	60.0
	계	50	100
소득 규칙성	규칙적	34	68.0
	불규칙적	16	32.0
	계	50	100

- 현재 상담 사후 설문에 응한 대상은 총 50명으로 남녀 성별은 남성은 약 40%, 여성은 약 60%로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소득이 규칙적인 경우가 68.0%로 더 높게 나타났음
- 평균 연령은 24세로 나타남

2) 상담 사후 실태조사

- 현재 상담 사후조사에 임한 자립준비청년의 재무문제 대처능력과 일상적인 돈관리에 대한 역량, 진로, 관계, 정서 등의 비재무적 문제 수준은 <표 10>과 같음

<표 10> 사후 참여자 조사(N=50)

문 항	전혀 아니 다	아니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재무관리(돈 관리)에 자신감이 있다.	28	12	9	1
2. 나는 돈 문제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19	18	9	4
3. 나는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잘 실천할 수 있다.	26	11	12	1
4. 나는 재무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28	8	12	2
5. 예기치 못한 재정적 문제가 발생해도 나는 잘 대처할 수 있다	25	8	13	4
6. 나는 예산(돈쓰기 계획)을 세우고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3	7	28	12
7. 나는 지출내역(가계부)를 기록하는 편이다.	4	20	14	12
8. 나는 비상예비자금을 가지고 있는 편이다.	2	6	22	20
9. 나는 재무목표가 분명히 있다.	2	12	21	15
10. 나는 소득의 일정 부분을 정기적으로 저축(투자) 한다.	2	2	21	25
11. 나는 진지하게 나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편이다.	1	7	19	23
12. 나는 진로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있다.	1	10	23	16
13. 나는 나의 밝은 미래를 위해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편이다.	2	3	26	19
14. 생각을 함께 공유할 친구가 있다.	1	2	28	19
15. 어려움 점이 있을 때 언제든지 기대고 도움을 청할 어른이 있다.	2	0	22	26
16. 상담을 통해 한결 편안해졌다.	1	2	29	18
17. 상담을 통해 한결 고민했던 바가 많이 해결되었다.	2	3	27	18

18. 상담을 통해 긍정적인 나의 미래모습을 꿈꿀 수 있게 되었다.	3	2	25	20
19.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친구에게 상담을 권하고 싶다.	1	2	28	19

- 금융역량: 1번부터 5번 문항은 재무문제에 대처능력을 묻는 문항으로, 여전히 재무관리와 재무문제 해결에 대한 자신감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더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해보임. 6-10번문항은 일상적인 돈관리 즉 소비지출, 저축, 비상예비자금등에 대한 역량으로 대부분 '그렇다'이상으로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음(추후 차이검증을 통해 통계자료제시)
- 진로, 관계 등: 미래에 대한 고민은 많으나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고 사전조사보다 '같이 상의할 친구와 어른이 있다'는 항목에 대해 '그렇다' 이상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상담 효과: 상담을 통해 자신의 미래에 대해 꿈꿀 수 있고 편안해졌고 주변에도 권하고 싶다는 의견이 '그렇다' 이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V. 금융교육 및 상담 효과성 차이검증

1. 금융교육 효과성 검증

1) 금융지식에 대한 교육 효과

□ 전반적 금융지식에 대한 교육 효과는 <표 11>과 같음

<표 11> 사전-사후 전반적 금융지식의 차이(N=119)

교육전후	평균	표준편차	t
사전	4.06	1.30	5.22***
사후	4.88	1.13	

*p<0.05 **p<0.01 ***p<0.001

- 금융지식 6개 문항을 이용하여 전반적 금융지식을 측정하였음

- 총점은 0~6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금융지식이 높은 것으로 해석함
- 전반적 금융지식에 대한 교육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사전-사후 차이검정 (Paired t-test)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 금융지식에 대한 유의한 증가가 나타남($t=5.22$, $p<0.001$)
- 금융역량 교육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반적 금융지식이 교육 전 평균 4.06점($sd=1.30$)에서 교육 후 평균 4.88점($sd=1.13$)으로 증가하였음
- 자립준비청년들의 금융지식은 교육 후 향상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금융지식에 대한 문항별 효과는 <표 12>와 같음

<표 12> 사전-사후 문항별 금융지식의 차이(N=119)

문항	구분	오답		정답		RR	χ^2 (pr)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1. 수익률이 높은 투자는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다.	사전	20	16.8	99	83.2	1.15	10.06 ** (0.002)
	사후	5	4.2	114	95.8		
2. 휴대폰 사용료가 연체되는 것은 신용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사전	20	16.8	99	83.2	1.08	2.31 (0.128)
	사후	12	10.1	107	89.9		
3. 국민연금은 물가에 의한 실질가치를 보장하는 연금이다.	사전	69	58.0	50	42.0	1.54	12.31 *** (0.000)
	사후	42	35.3	77	64.7		
4. 집주인은 세입자가 2개월 이상 연체 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사전	73	61.3	46	38.7	1.74	19.50 *** (0.000)
	사후	39	32.8	80	67.2		
5. 아르바이트는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	사전	19	16.0	100	84.0	1.06	1.30 (0.254)
	사후	13	10.9	106	89.1		
6. 쉽게 대출 받을 수 있는 곳일수록 금리가 비싸다.	사전	30	25.2	89	74.8	1.09	1.57 (0.210)
	사후	22	18.5	97	81.5		

* $p<0.05$ ** $p<0.01$ *** $p<0.001$

RR(Risk Ratio) = (사후 정답율) / (사전 정

답율)

- 금융지식에 대한 문항별 교육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 및 Pearson 카이제곱 검정을 수행한 결과 1번($\chi^2=10.06$, $p<0.01$), 3번($\chi^2=12.31$, $p<0.001$) 및 5번($\chi^2=19.50$, $p<0.001$) 문항에 대한 정답율이 교육 후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수익률이 높은 투자는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다’는 질문에 대한 응답율이 사전 대비 사후에 15% 높게 나타남
- ‘국민연금은 물가에 의한 실질가치를 보장하는 연금이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후 응답율이 사전응답률보다 54% 높게 나타남
- ‘집주인은 세입자가 2개월 이상 연체 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한 응답율은 사전 응답률보다 74% 높았음

2) 금융태도에 대한 교육 효과

□ 금융태도에 대한 교육 효과는 <표 13>과 같음

<표 13> 사전-사후 금융태도의 차이(N=119)

변수	사전		사후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반적 금융태도	3.32	0.39	3.41	0.47	1.57
1. 현재를 위해 소비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2.18	0.85	2.09	1.03	0.76
2. 돈은 어떤 방법으로든 무조건 많이 벌 수 있으면 좋다.	2.00	0.88	1.76	0.80	2.23*
3. 사고 싶은 게 있으면 돈을 빌려서라도 먼저 사야 한다고 생각한다.	1.34	0.51	1.34	0.63	0.11
4. 돈을 빌리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3.82	0.55	3.82	0.50	0.12

*p<0.05 **p<0.01 ***p<0.001

- 금융태도는 4점 척도 4개 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음
- 전반적 금융태도는 1번, 2번 및 3번 문항을 역 채점 후 4개 문항의 평균값으로 생성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전반적 금융태도가 건전한 것으로 해석함
- 교육 전후 금융태도의 차이를 측정한 결과, ‘돈은 어떤 방법으로든 무조건 많이 벌 수 있으면 좋다’라는 태도를 유의하게 낮춘 것으로 분석됨(t=2.23, p<0.05)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돈은 어떤 방법으로든 무조건 많이 벌 수 있으면 좋다는 태도가 교육 전 평균 2.00점(sd=0.88)에서 교육 후 평균 1.76점(sd=0.80)까지 감소하였음
- 전반적인 금융태도에 대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사전 사후 점수들의 변화는 비교적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음

3) 금융행동에 대한 교육 효과

□ 금융행동에 대한 교육 효과는 <표 14>와 같음

<표 14> 사전-사후 금융행동의 차이(N=119)

변수	사전		사후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반적 금융행동	3.06	0.58	3.39	0.50	4.73***
1. 소액이라도 연체하지 않는다.	3.53	0.79	3.71	0.60	1.94*
2. 나는 한달 예산 범위내에서 지출하려고 노력한다.	3.15	0.78	3.45	0.65	3.26**
3. 내 개인정보를 노출시키지 않고 잘 관리하는 편이다.	3.03	0.80	3.34	0.70	3.09**
4. 나는 식비, 잡회비, 의류비 등 월변동성 지출을 잘 통제하는 편이다.	2.68	0.82	3.10	0.74	4.14***
5. 내 이름의 저축통장을 가지고 꾸준히 저축하고 있다.	2.98	0.94	3.45	0.69	4.42***
6 나는 미래변화에 관심이 많고 환경에 적응하고 잘 대응할 수 있다.	2.99	0.78	3.30	0.68	3.28**

*p<0.05 **p<0.01 ***p<0.001

- 금융행동은 4점 척도 6개 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음
- 전반적 금융행동은 6개 문항의 평균값으로 생성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전반적 금융행동이 건전한 것으로 해석함
-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금융역량 교육은 전반적 금융행동에 유의한 긍정적 효과(t=4.73, p<0.001)를 보임. 즉, 전반적으로 금융행동점수가 교육 전 평균 3.06점(sd=0.79)에서 교육 후 평균 3.39점(sd=0.50)으로 증가하였음

- 문항 별 금융효과도 가시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 즉, 소액연체관리($t=1.94$, $p<0.05$), 예산 내 지출($t=3.26$, $p<0.01$), 개인정보관리($t=3.09$, $p<0.01$), 변동성 지출 통제($t=4.14$, $p<0.001$), 저축($t=4.42$, $p<0.001$) 및 미래변화와 환경적응($t=3.28$, $p<0.01$) 등 건전한 금융행동을 심어준 것으로 확인됨

2. 상담 효과성 검증

1) 재무문제와 재무문제 대처능력

□ 전반적 재무문제, 재무문제 대처능력에 대한 상담 효과는 <표 15>와 같음

<표 15> 사전-사후 재무문제 대처능력(N=50)

변수	사전		사후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재무대처능력	1.81	0.75	2.40	0.66	4.12***
1. 나는 재무관리(돈 관리)에 자신감이 있다.	1.66	0.85	2.28	0.76	3.86***
2. 나는 돈 문제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1.96	0.95	2.14	0.88	0.98
3. 나는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잘 실천할 수 있다.	1.76	0.89	2.60	0.83	4.86***
4. 나는 재무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1.76	0.96	2.40	0.81	3.61***
5. 예기치 못한 재정적 문제가 발생해도 나는 잘 대처할 수 있다	1.92	1.05	2.56	0.81	3.42***

* $p<0.05$ ** $p<0.01$ *** $p<0.001$

- 상담 전,후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재무문제에 대한 대처능력은 유의한 긍정적 효과($t=4.12$, $p<0.001$)를 보임. 즉, 전반적으로 재무문제대처능력이 상담 전 평균 1.81점($sd=0.75$)에서 교육 후 평균 2.40점($sd=0.66$)으로 증가하였음
- 문항 별 재무관리 대처능력에 대한 상담효과도 가시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 ‘나는 돈 문제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에 대한 문항을 제외하고는 상담 후 재무관리 대처능력이 긍정적으로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초기 점수가 매우 낮아져 그 점수보다 향상된 것이지 보통 3점 이상의

평균값을 가지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역량함양을 위한 상담을 보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2) 일상적인 돈 관리 능력

□ 일상적인 돈 관리 능력에 대한 상담 효과는 <표 16>과 같음

<표 16> 사전-사후 일상적인 돈 관리(N=50)

변수	사전		사후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일상적인 돈 관리	2.46	0.54	3.04	0.63	4.99***
1. 나는 예산(돈쓰기 계획)을 세우고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2.60	0.81	2.98	0.80	2.37*
2. 나는 지출내역(가계부)를 기록하는 편이다.	1.92	0.78	2.68	0.94	4.42***
3. 나는 비상예비자금을 가지고 있는 편이다.	2.54	0.81	3.20	0.81	4.07***
4. 나는 재무목표가 분명히 있다.	2.44	0.76	2.98	0.84	3.36**
5. 나는 소득의 일정 부분을 정기적으로 저축(투자) 한다.	2.78	0.82	3.38	0.75	3.82***

*p<0.05 **p<0.01 ***p<0.001

- 일상적인 돈 관리 영역에서 상담의 효과는 유의한 긍정적 효과(t=4.99, p<0.001)를 보임. 즉, 전반적으로 상담 전 평균 2.46점(sd=0.54)에서 교육 후 평균 3.04점(sd=0.63)으로 증가하였음
- 문항 별 상담효과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중에서는 지출내역을 기록(t=4.42, p<0.001), 비상예비자금 마련(t=4.07, p<0.001), 정기적 저축(t=3.82, p<0.001)은 상담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3) 비재무적 영역

□ 비재무적 영역에 대한 상담 효과는 <표 17>과 같음

<표 17> 사전-사후 비재무적 영역(N=50)

변수	사전		사후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비재무적 영역	2.98	0.70	3.27	0.58	2.24*
1. 나는 진지하게 나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편이다.	3.24	0.80	3.28	0.78	0.25
2. 나는 진로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있다.	2.68	0.91	3.08	0.78	2.36*
3. 나는 나의 밝은 미래를 위해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편이다.	3.12	0.75	3.24	0.74	0.81
4. 생각을 함께 공유할 친구가 있다.	2.94	0.91	3.30	0.65	2.28*
5. 어려움 점이 있을 때 언제든지 기대고 도움을 청할 어른이 있다.	2.92	0.94	3.44	0.70	3.12**

*p<0.05 **p<0.01 ***p<0.001

-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비재무적 영역에서의 상담효과는 전반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효과(t=2.24, p<0.05)를 보임. 즉, 전반적으로 상담 전 평균 2.98점(sd=0.70)에서 상담 후 평균 3.27점(sd=0.58)으로 증가하였음
- 문항 별 상담효과에서는 미래진로계획(t=2.36, p<0.05), 생각을 나눌 친구관계(t=2.28, p<0.05), 어려울 때 기댈 어른이 있다고 생각(t=3.12, p<0.01)하는 영역에서는 상담이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고 확인됨
- 그러나 다른 영역에 비해 비재무적 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큰 유의한 차이가 적게 나타나 추후 상담영역에서 비재무적 영역분야의 상담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VI. 결론

1. 금융교육 및 상담의 사전·사후 효과성 분석을 통해 금융교육과 상담이 자립준비청년들의 금융역량수준 향상과 재무적, 비재무적 영역의 긍정적 효과를 검증하였음

- 분석결과, 금융교육은 전반적으로 자립준비청년의 금융지식과 금융행동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였으나 금융태도 역량에서는 ‘돈은 어떤 방법으로든

무조건 많이 벌 수 있으면 좋다'라는 영역에서 긍정적 태도 변화를 가져온 것을 제외하고 다른 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음

- 이는 금융태도의 긍정적 변화는 1년 미만의 단기적 교육으로 해결되기 어렵고 보다 지속적으로 교육되어야 함을 시사함
- 본 사업에서 진행된 융복합 금융상담의 재무대처능력, 일상적 돈관리 영역에서는 거의 대부분 하위영역에서 크게 개선되었음이 검증되었고 비재무적 영역에서도 '어려움 점이 있을 때 언제든지 기대고 도움을 청할 어른이 있다'는 영역에서 긍정적 효과를 검증하였음
- 그러나 앞으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에서는 재무적 영역 뿐 아니라 자신의 미래와 진로를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비재무적 영역의 상담도 확장되어야 할 것임

2. 이러한 결과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보다 개선된 맞춤형 교육과 상담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